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12일)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0일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탁구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파리올림픽, 한마음으로 응원"

종지협 7대 종교 지도자들
7월 10일 진천선수촌 방문
불자 선수들에게 단주 선물
"마음 비우는 연습을" 격려
패럴림픽 선수에 사찰음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진천선수촌을 방문,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과 7대 종교지도자들은 7월 10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격려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종지협 공동대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종지협 운영위원장 도심 스님, 여운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국장, 한재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과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이 함께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이혁렬 한국대표선수단지원단장, 전기범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 등도 배석했다.

진천 선수촌에 도착하자마자 장재근 선수촌장 안내로 훈련장을 찾은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인 양궁 국가대표선수들을 만났다. 진우 스님은 김우진·이우석·김재덕·전훈영·임희현·남수현 선수에게 "과녁을 제대로 맞춘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이 안정돼야 실력이 나온다"며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정신적인 기운을 전하러 왔으니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배드민턴 훈련장에서도 이소희, 공희용, 백하나 선수 등을 만났으며 탁구 훈련장에서는 장우진·임종훈·조대성 선수 등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장재근 선수촌장에게 격려금 3000만원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메달도 중요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시합에 임해달라"면서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도 종교지도자들의 응원과 기운 덕분에 잘 해 낼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종목 등을 다양화하고 학교 체육 정상화에 힘쓰는 등 체육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7대 종교지도자들은 식사 중인 선수들을 응원하며 단주 등을 선물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면 시합에 들어가서도 평소 훈련했던 실력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좋은 성과를 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덕 양궁선수는 종교지도자들의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평소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 파리 하계 패럴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과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은 7월 11일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2024 파리 하계 패럴림픽 선수단과 지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 오찬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25가지 사찰음식이 제공, 선수단의 선전을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파리 하계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전 세계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1만 5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서 메달을 놓고 우정의 대결을 펼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을 합쳐 262명이 참가한다.

동국대 全 불교 동아리에 장학금
"학업 정진해 자비로 회향하겠다"

15개 단과대학, 대학원 동아리에
지역불자 장학기금 전달 완료해
전국 사찰서 장학금 릴레이 기부
퇴임 앞둔 서광 스님 동참 '감동'
150명 혜택… 장학금 지속 계획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의 모든 불교 동아리에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19일 AI융합대학 불교동아리 '붓다이'로 시작해 7월 10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총 15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전달을 완료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전달로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 동아리 회원 150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는 월정사, 통도사 등 교구본사부터 조계사, 봉은사, 흥천사, 수원사, 원법사, 칠장사 등 지역 사찰들까지 전국에서 동참했다. 특히,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에 쾌척해 감동을 자아냈다.

7월 8일 이뤄진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서광 스님은 "과분한 감사 인사를 받게 되어 오히려 빚진 기분"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불교발전과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앞날에도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라며,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동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사찰들도 학생들과 맺어진 인연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에 장학금을 전한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은 "단과대별로 불교동아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드문 경우의 일이며, 이렇게 활기 넘치는 조직은 처음 봐서 매우 기쁘다"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불교동아리 '약사여래'에 장학금을 기부한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전국 대학 최초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큰 사건"이라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 역시 재정적 여유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황정민(불교대학 불교학부 2학년) 학생은 "이번 장학금으로 학업과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일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은 저의 시야를 넓히고, 이타적인 마음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수(이과대학 화학과 3학년) 학생은 "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한다"면서 "제가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앞으로 저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겠다. 스님들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교내 불교 동아리에 대한 장학금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5월 11일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에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앞으로 저와 대학은 모든 원력을 우리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쏟겠다.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기부를 확대해 많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연합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 동아리 회장에게는 '동국건학장학'을 통해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아리 회원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 된다. 새로 신설되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서는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